


### 공동체 소식



**연중 제5주일**

주님, 주님의 가족을 자애로이 지켜 주시고,  
천상 은총만을 바라는 저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소서.

#### 2월 기도지향

- + 류기범 요셉, 신혜경 마리아 가정
- + 장시우 시몬, 장남순 올리안나 가정

#### 설 합동위령미사 봉헌

- 일시 : 2/7(주일) 오전 11:00 교중미사 중.
- 내용 : 미사 끝에 '세배예절'을 갖고, 식사 후에 '설 명절 웃놀이' 있습니다.

#### 2/10(수)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입니다.

- 미사 : 2/10(수) 저녁 7:30 미사 중에 '재의 예식'이 있습니다.
- 평일미사 : 이번주간 화,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기도' 안내

- 시간 : 매 사순주일 교중미사 40분 전에 '십자가의 길 기도'를 공동으로 바칩니다.

#### 맨해튼 공동체 미사

- 일시 : 2/13(토) 오전 11:30.

####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2/27(토) 오후 5:30.

#### 캔사스대교구 '자비의 특별히년 나눔초대 -Arch-bishop's Call to Share'

- 내용 : 캔사스 대교구 교구장 주교님의 자선나눔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이미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고 있고,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참여방법 : 교구홈페이지 메뉴 -RESPONDING (<https://www.calltoshare.org/>).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국 선거인 명부등록 신청 안내

- 명부등록기간 : 2015.11.15.- 2016.2.13
- 등록대상 :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997.4.14. 출생자 까지)
- 영주권자, 2중국적자, 불법체류자도 신고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va.nec.go.kr>) 등 본당게시판 참조

####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파 견
29	510	163	26

####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이원준 요한	정병훈 보니파시오
	정채린 소피아	문호진 안토니오
다음주일	고평원 프란치스코	안광민 야고보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홍순익 마르티노 최은미 아녜스
차주	김대연 요셉	신혜경 마리아 박희영 카타리나

#### 애찬 봉사자

금주	조경희, 김계숙, 조지연
차주	박정자, 김경돌, 한순례, 정지현

####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31	85명	509불	950불

정수한, 류기범, 정석원, 임창주 (총 4세대)

1/17일, 1/24일 교무금: 김화년, 이우영, 김대연, 김호원, 박동희, 이혁구 (총 6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 미사는 우리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 미사로 봉헌합니다. 우리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올 한 해를 위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시작이며 마침이신 하느님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맡겨 드리며,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합니다.

### 성화해설

(한스 멤링, 1480, Oil on wood, 벨기에 안트베르펜 왕립박물관)  
민족 고유의 명절이며 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설입니다. 한스 멤링은 하느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세상을 향해 천히 강복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해를 주 그리스도의 강복 속에 시작하며, 우리 자신이 새롭게 복음화되는 시기로 살아가길 희망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1-2 3,3-8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화답송 : 

- ◎ 주님,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려나이다. ◎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5,1-11<또는 15,3-8.11>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5,1-11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쉐 마

## 부족함 고백하는 겸손한 종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자신에게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맡기시려고 다가오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이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하며, 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사야의 죄를 없애 주시고, 그를 당신 말씀을 전하는 깨끗한 입을 가진 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에 관해 직접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박해자였던 바오로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바오로는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었던 데다가 박해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자랑할 수도 없었고, 또 언제나 신앙적 선배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은 자신이 “전해 받은” 복음이라고 말하며, 자신을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볼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부르십니다. 겐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 일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일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의 이야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맥이 발견됩니다. 하느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면, 그는 자신이 사명을 수명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북돋우어 주고,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이런 이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자신이 행한 일이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이 아니라 모두 하느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받습니다. 어떤 이는 사제로, 어떤 이는 수도자로, 또 어떤 이는 교리교사나 선교사로, 또 어떤 이는 본당의 평신도 지도자나 단체장 혹은 간부로 선택됩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자신이 능력 때문에 선택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제대로 된 제자라면 선택받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말아야 할 임무의 무거움에 두려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분들만이 하느님 앞에서 도움을 청하고,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저는 종종 신학생들에게서 보곤 합니다. 신학생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은 모습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야말로 진정 부르심 받은 이의 모습이라는 사실이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서품식장에 들어가 자신의 부족함을 온전히 드러내며 제대 앞에 엎드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신을 PR하며 포장하기를 권하는 오늘날 스스로를 너무 과하게 포장하여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아니즘에 빠진 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느님의 활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잘난 맛에 하는 이들의 삶에서 겸손한 하느님의 종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느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하든 그분의 뜻을 찾는 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룬 뒤,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느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이들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소명을 받은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봅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주춧돌

## 용기 있는 여성 에스테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잔치 중에 술에 취한 임금은 기분이 좋아 아내인 와스티 왕비를 불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의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러나 임금의 명령을 전하러 간 시종에게 왕비는 무엇이냐 답을 했고, 그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에스 1,1-22

수사에는 모르도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이 어린 조카 에스테르가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마침 신하들은 새 왕비를 구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에스테르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궁 안에서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에스 2,1-18

에스테르는 크세르크세스 임금의 왕비가 되었고 모르도카이도 궁중의 관리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하만이란 사람이 재상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무척 미워해서 페르시아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흥계를 꾸였습니다. 하만은 임금에게 유대인들이 반역을 할 것이라고 고하고 온

지방 수령들에게 유대인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몰수 하라는 편지를 발송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만은 왜 모르도카이를 미워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의 전갈을 받고 무엇을 부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에스 2,19-8,17

에스테르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만과 그의 아들 10명은 모르도카이를 매달려고 마련해 놓았던 교수대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부림절이라 하여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 어디서든지 지키는 민족의 축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에스테르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수백만 명의 동족을 구한 것을 기억합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복음 묵상

## 어두운 길의 끝

처음에는 두렵고  
어쩌면 싫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눈이 부시고  
찡그릴지도  
하지만,  
이 길 끝에 다다르면  
더 이상  
어둠에 몸을 숨기지 않을 거랍니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루카 5,8)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